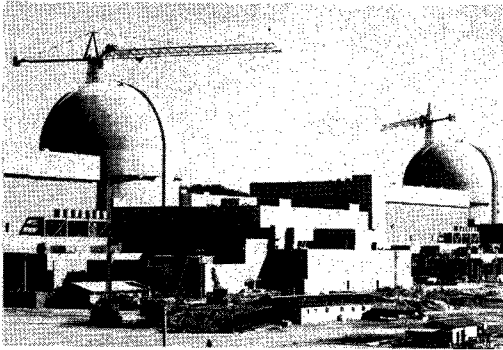


## 多方面에 걸친 原子力



지난 1986년은 원자력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한해였다. 現代建設이 施工한 原電 5&6號機의 竣工式이 6월에 있었고, 뒤이어 原電 7號機가 8월에 商業運轉에 들어갔다. 이로써 우리나라 總發電容量中 原電이 차지하는 比率은 26.4%가 되었다. 올해에 原電 8號機마저 완공되어 상업운전이 시작되면, 現代建設(株)은 1971년 국내 최초의 原電 1號機부터 原電 8號機까지 17년간 참여해온 것이 되며, 原子力發電所 建設事業에 있어서 명실공히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처음 原電 1號機에 施工 부분하청계약자로 출발한 이래, 原電 5號機에 이르러서 施工 부분주 계약자가 된 現代建設은 施工部分의 완전 자립화를 이루었으며, 총 7基의 原電 建設의 施工을 맡는 동안 축적된 자료에 대한 전산화 처리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막대한 양의 시공물량 자료, 공정자료 등을 이미 정리하여 電算化하였다. 또한 200여개의 작업절차서 및 검사절차서는 컴퓨터의 word processing기능을 통해 저장

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편집,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졌다. 그리하여 새로운 原電 建設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언제든지 컴퓨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더우기 現代建設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초대형 컴퓨터 2대에 추가하여, 70여대의 IBM 5550 시스템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산화된 사무자동화작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86년도에는 原子力 建設工事に 대한 표준화 교재가 발간되었으며, 오랫동안 施工業務에 직접 종사해온 현장기술자들이 쓴 생생한 공사보고서의 정리가 완료되었고, 原電 建設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활동에 있어서도 각종 NCR(불만족사항) 및 품질활동결과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시도되었다.

1987년에 現代建設은 17년간에 걸친 7基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경험으로 부터 얻어진 施工能力의 보존 및 지속적인 활용이 회사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다방면에 걸친 原子力産業에의 참여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미 1982년부터 現代建設은 고도산업사회를 뒷바침하고, 석유 탈피의 에너지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SECURE를 이용한 원자력 지역난방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또한 최근에는 일반 기름보일러 규모의 SLOWPOKE 원자로를 이용한 지역난방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SECURE 原子力

# 事業參與 試圖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1984년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과제로 채택되어 現代建設, KAERI, KAIST 그리고 원자로 설계자인 ASEA-ATOM 등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現代建設은 계속해서 SECURE 원자력 지역난방 계통에 대한 국산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SLOWPOKE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망의 原電 11, 12號機 建設에의 참여를 위해 現代建設은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原電 建設에 필요한 原子力建設표준화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다. 즉, 지금까지 原子力 建設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일정, 공사물량, 공사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표준화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사람에게 의한, 기술에 의한, 장비에 의한 자원을 잠재우지 않고 다시 활용하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現代建設이 原電 建設에 계속 참여한다는 것은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한편, 原子力建設에 참여했던 현장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즉, 그 방안이란 原子力 建設技術分野를 약100여개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여 체계적인 전파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그 외에도 現代建設은 多目的 研究爐 建設사

업 및 放射性廢棄物 處分事業에도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특히, 多目的 研究爐 建設에는 고도의 시공기술과 완벽한 품질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現代建設이 품질활동에 관한한 미국 ASME가 인정하는 최고의 권위인 NA(설치 부문), NPT(부품제작 부문)의 인증서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原電 建設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왔다는 것은 이 사업참여에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放射性廢棄物 處分事業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동력자원부가 中低準位 放射性廢棄物의 영구처분장을 오는 1991년 까지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은 건설업계로서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中低準位 放射性廢棄物 영구처분장은 한번 건설되면 지하수, 온도변화 등의 침식요인에 대해 수백년 혹은 그이상 견디어 내어야 하므로, 능력있는 시공업자의 선정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現代建設은 영구처분장에 대한 스스로의 시공능력을 더욱 높이고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외국에 있어서의 경우를 참조하기 위해 문헌수집 및 자료정리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련 외국기관과의 접촉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1987년은 現代建設이 施工해온 原子力發電所가 모두 정상운전에 들어감과 아울러 새로운 원자력사업에의 참여문제가 결정되는 등, 가장 뜻깊은 한해가 될 것이며, 現代建設은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